

“제주 치안 괴담 확산, 적극 대응하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의원들 도당국에 ‘제주 이미지 저해’ 대응 주문
도 “제주관광 추세 맞춰 안전체계 촘촘히 할 것”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여파로 인해 도내 치안
을 우려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
고, 급기야 SNS(개인사회관계망)
중심으로 근거 없는 괴담까지 번지
며 제주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자
제주도가 가짜뉴스 바로 잡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가 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
원회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

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
날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
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에 배
석한 양재운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에게 외부에 비치는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
돈·영천동)은 “제주에서 발생한 불
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매뉴
얼을 구축해 가짜뉴스 만큼은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위험 지역을 편성해 안전 모니터링
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
읍)도 치안 우려 확산에 대해 “제
주도 대응이 미약하다”면서 “(우려
상황이)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주
관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원인
이 될수 있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
2동갑)은 최근 제주도에서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 확대를 추진
하는 것과 관련해 “CCTV 보존기
간은 현재 정부 규정상 30일인데,
60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

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
서도 제주에만 60일 보존을 하기
위한 예산을 줄것 같진 않다”면서
“안됐을 경우에 제2의 대책도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양재운
기획조정실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바로잡고 제대로 알려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제주 관광 추세가 개별관광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CCTV와 안심캠 등을 통해 안전 체
계를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 방향에도 안
전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정착 인도 출신 과학자의 제주 사랑 “흑돼지 마블링 세포·유전자 연구”

제주대 아드히몰람 교수
“제주흑돼지는 문화 자산”
‘감귤 껍질’ 주제로 연구도

제주 재래 흑돼지의 마블링을 담당
하는 세포·유전자를 찾는 연구가
시작된다. 연구자는 7년 전 제주에
정착한 인도 출신 과학자다.
제주대는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
국제동물연구센터 카르티케안 아
드히몰람 연구교수(사진)가 교육
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3년간 흑돼지의 근대지방
을 조절하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표준 유전체 지도 구축이 추진된
다. 마블링 담당 세포와 유전자 규
명 연구도 이뤄진다.
제주대는 이번 연구가 도내 축산
농가와 양돈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돼
지의 생산성과 육질을 동시에 향상



시키고 지속 가
능한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면서다. 또
마블링 관련 유전
자원을 발굴하면
육질 형질을 조기
에 예측하고 정밀
육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카르티케안 아드히몰람 교수는
2019년 제주에 정착해 7년째 연구
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주제는 감귤 껍질, 강황 등 모두 국
내 자원이었다. 인도에서 농학을
전공했으며 중국 난징농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제주 재래 흑돼지는 제주
가 가진 살아 있는 유전자원이자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로 만
들어질 표준 유전체와 세포 지도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 전 세
계 돼지 유전체 연구가 제주를 참
조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지난 7월 구조됐던 소쩍새 4마리가 2개월간의 치료와 비행훈련 후 2일 자연으로 방사됐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제공

해경, 제주 437km 거리 해상 크루즈 임산부 헬기로 이송

제주해경이 하혈 증상을 보인 초기
임산부를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
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
면 전날 낮 12시51분쯤 서귀포 남
서쪽 약 437km 해상에서 대만에서
부산으로 향해 중이던 크루즈 A호
(1만1426t)의 선박 대리점로부터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여성 승
무원 B씨가 하혈하고 있다는 신고
가 접수됐다. B씨는 임신 2~3주차
로, 당시 복통과 하혈 증상을 호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씨를 오후 6시39분쯤
병원으로 인계했다. 양유리기자

천연기념물 소쩍새 4남매 다시 자연으로...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7월 구조 이후 2개월간 치료·비행 훈련

천연기념물인 제주 소쩍새 4마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
2일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
조센터(구조센터)에 따르면 지난 7
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소쩍
새 4마리가 구조됐다. 벌채 과정 중
나무 위 동지가 파손되며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
조센터가 확인한 결과 큰 골절이나

중증 외상은 없었지만, 4마리 중 일
부 개체가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제
대로 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한 동지에서 생활하던 소쩍새 4
남매는 이후 구조센터로 옮겨져 2
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센터는 체
온 조절을 위해 인큐베이터 안에서
관리했으며 개체별 상태에 맞춰 약
물 처치, 영양 공급 등으로 보살폈

다. 비행훈련을 통한 야생 적응력
도 평가했다. 그 결과 4마리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일 방사 현장에는 아라초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했다. 학생들
은 야생동물의 자연 복귀를 지켜보
며 생태 보전의 가치를 경험했다.
윤영민 구조센터장은 “숲 개발이

나 주변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소쩍
새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
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균형
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
다”고 했다.
울메미과인 소쩍새는 여름철에
번식하는 대표적 여름 철새다. 산
림과 농경지 주변에 서식하는 야행
성 조류로, 특유의 ‘소쩍 소쩍’ 하
는 울음소리로 잘 알려져 있다. 지
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
호받고 있다. 김지은기자

도,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도민 투표

선정된 사업 예산안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까지
도민이 직접 2027년도 주민참여 예
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투표 대상은 총 145개 사업으로
사업 유형별로는 ▷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있는 광역사업 14건 ▷청년
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
한 청년사업 20건 ▷행정시 단위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참
여사업 111건이다.
투표 참여자는 후보사업의 내용
과 필요성, 사업비 등을 확인한 후
광역사업과 청년사업에서 각각 3개
사업, 시정참여사업에서 5개 사업
을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총 11표
를 행사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구

체화한 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
여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30%의
비율로 사업 선정에 반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구
체화한 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성 곤

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 의 숙

임

제 주 시 장

이 상 봉
(본회 자문위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 장 임 재 현 외 회원 일동

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이 창 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례초등학교총동창회